

석사학위논문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태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호 숙

2003년 8월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출자 김 효 숙

김효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3년 7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김 효 속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최근 특수교육계에서는 장애아 교육에 있어서 장애아 개인에 대한 접근보다는 아동과 아동의 환경을 구성하는 각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생태학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아의 가족전체에 대한 서비스가 고려되고 있는데, 그 중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들에게도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가 살아가면서 겪는 심리적 갈등의 정도를 밝혀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를 위한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비장애 형제의 성별, 나이,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 및 서열관계에 따른 심리적 갈등을 조사해보았다.

본 조사 연구를 위한 대상자는 제주도내의 2개 특수학교와 1개 복지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12개 특수학교, 대전 및 충남 지역의 4개 특수학교와 2개 직업전문학교, 대구의 2개 직업전문학교, 부산의 2개 특수학교, 광주 2개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의 만 20세 이상의 미혼 비장애 형제 219명이었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질문지는 2가지로, 비장

에 형제의 기초정보에 관한 질문지와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갈등을 측정하는 질문지 등이었고, 각 질문지는 연구대상인 비장애 형제가 응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F와 t-test 분석 처리되었다.

이에 따른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장애 형제들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장애 형제에 대한 갈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 비장애 형제가 비장애 남자형제보다 더 갈등이 높으며, 전체적으로 31-35세의 비장애 형제의 갈등이 가장 높다.

둘째, 장애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은 전체적으로 31-35세의 비장애 형제가 가장 높다

셋째, 장애형제로 인한 사회생활에서의 갈등은 전체적으로 31-35세의 비장애 형제가 가장 높다.



* 본 논문은 2003년 7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와 가설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장애아 가정과 비장애 형제	5
2. 장애아 가정의 형제관계	11
3. 장애아 가정이 비장애 형제에 미치는 영향	15
4.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갈등	19
III. 연구 방법	22
1. 연구대상	22
2. 조사도구	23
3. 자료처리	24
IV. 연구 결과 및 해석	25
V. 요약, 결론 및 제언	43
1. 요약	43
2. 결론	46
3. 제언	47
참고 문헌	49
<Abstract>	53
<부 록>	56

표 목 차

<표Ⅲ-1> 질문지 응답자 현황	22
<표Ⅲ-2>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갈등의 하위변인과 요인별 해당 문항	24
<표Ⅳ-1> 비장애 형제의 성별에 따른 장애 형제에 대한 갈등	25
<표Ⅳ-2> 비장애 형제의 나이에 따른 장애 형제에 대한 갈등	27
<표Ⅳ-3>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장애 형제에 대한 갈등	29
<표Ⅳ-4>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에 따른 장애 형제에 대한 갈등	30
<표Ⅴ-1> 비장애 형제의 성별에 따른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	31
<표Ⅴ-2> 비장애 형제의 나이에 따른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 따른 갈등	32
<표Ⅴ-3>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	33
<표Ⅴ-4>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에 따른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	34
<표Ⅵ-1> 비장애 형제의 성별에 따른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갈등.....	35
<표Ⅵ-2> 비장애 형제의 나이에 따른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갈등.....	36
<표Ⅵ-3>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갈등	37
<표Ⅵ-4>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에 따른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갈등	38
<표Ⅶ-1> 비장애 형제의 성별에 따른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39
<표Ⅶ-2> 비장애 형제의 나이에 따른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40
<표Ⅶ-3>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41
<표Ⅶ-4>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에 따른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42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2002)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 학교에 취학 중인 장애아는 23,795명에 이른다. 이는 10년 전인 1992년의 20,690명에 비해 약 3천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일반학교에 취학 중인 장애아와 중증의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아 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 이처럼 선천적·후천적인 장애아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사회적응을 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부적응현상도 문제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들이 갖는 부적응 현상 또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특수학교의 학부모들과 상담을 해 보면,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를 부끄럽게 여겨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지 않거나 자신의 방문을 잠그고 생활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학부모들은 장애아만이 아니라 비장애 형제의 지도에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장애 형제들과의 대화에서도 장애 형제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위축되거나 장애 형제에게 부담을 느끼는 등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들에게 있어 장애 형제를 가진 것은 그들의 삶의 다양한 면 중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단순하게 일반화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고, 장애 형제를 가졌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을 특정짓기는 어렵지만 비

장애 형제들은 장애 형제의 존재와 관련된 긴장 상태를 지속하게 됨으로써 보다 극단적인 반응에 대한 잠재성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Crnic & Leconte, 1986; 송성자, 1987, 재인용).

실제적으로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는 아주 어린 나이의 아이일지라도 장애 형제로 인해 고민하고 그들 부모가 장애 형제에 몰두해 있는 것을 인식한다고 지적되고 있다(Murphy, et al., 1979). 또 장애아로 인해 가족의 정상적인 패턴이 변화되고 비장애 형제는 장애 형제를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장애아의 제한성을 보상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장애아를 대하는 부모의 여러 가지 태도의 변화에 따른 혼동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Blacher, 1984; Crnic et al., 1986). 그러나 장애아의 문제 때문에 비장애 형제의 문제는 부모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무시되어 버린다. 따라서 비장애 형제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들이 그들의 가족 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다(Crnic et al., 1986).

장애아 가정의 연구는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장애아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가사는 물론 장애아 양육에 따른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애아 가정의 연구에서 비장애 형제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데에는 비장애 형제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장애 형제에게 미치는 비장애 형제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아 가정의 비장애 형제에게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 가정의 비장애 형제가 그들의 성별, 나이,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 및 서열관계에 따라 장애 형제로 인해 어느 정도의 심리적 갈등을 겪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

구결과는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대하여 형제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고, 장애아 가정이 원만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문제와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에 대해 갖는 갈등은 비장애 형제의 성별, 나이,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서 갖는 갈등은 비장애 형제의 성별, 나이,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서 갖는 갈등은 비장애 형제의 성별, 나이,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비장애 형제가 사회생활에서 장애 형제로 인해 갖는 갈등은 비장애 형제의 성별, 나이,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비장애 형제의 성별, 나이, 동거여부, 서열관계에 따라 장애 형제에 대해 갖는 갈등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비장애 형제의 성별, 나이, 동거여부, 서열관계에 따라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서 갖는 갈등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비장애 형제의 성별, 나이, 동거여부, 서열관계에 따라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서 갖는 갈등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비장애 형제의 성별, 나이, 동거여부, 서열관계에 따라 사회 생활에서 장애 형제로 인해 갖는 갈등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장애아 가정의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에 대해 나타내는 태도를 관찰하거나 형제와의 면접을 통해 조사하는 대신 질문지에만 의존하였다.

둘째, 만 20세 이상부터 결혼 이전의 비장애 형제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연령층의 형제에게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셋째, 장애아 가족을 거론하는 것이 아직도 금기시 되거나 숨기려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충분한 양적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되었던 비장애 형제들은 그들의 장애 형제가 현재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교육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갈등 정도와 결과를 현재 적절한 교육 및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을 밝히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장애아 가정과 비장애 형제, 장애아 가정의 형제관계 및 비장애 형제들의 심리적 갈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장애아 가정과 비장애 형제

가족 중 한 구성원이 장애를 가짐으로 해서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구성원간의 관계가 그렇게 달라지는 데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실시되어 온 장애아의 형제와 관련된 연구 문헌들은 형제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형제간의 상호작용에 관여하게 되는 가족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Benson과 Turnbull, 1986; Turnbull과 Turnbull, 1986; Simpson, 1990). Powell & Ogle(1985) 또한 형제관계를 개념화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형제가 커다란 가족체제의 상황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 가정의 형제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형제간의 상호작용이 기능하는 몸체로서의 가족을 이해해야 한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Benson과 Turnbull, 1986; Turnbull과 Turnbull, 1986)에 따라 가족을 특성과 요구를 지닌 하나의 사회체제로 보는 가족체제이론에 근거하여 장애아 가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체제이론은 한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 각자가 서로 연관되어 한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은 다른 모든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Carter와

McGoldrick, 1980; Hoffman, 1980). 그래서 이전까지는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부모들의 참여 문제에 초점을 두어 왔지만, 이제는 각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응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Turnbull과 Turnbull, 1986). 그리고 장애아를 위한 교육·교정 서비스가 아동의 독특한 요구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처럼 가족에 대한 접근에서도 이런 개별화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enson & Turnbull, 1986; Simpson, 1990).

1) 장애아 가정의 가족 구조와 비장애 형제

가족 구조란 가족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의미하는 하나의 모습이다(Benson과 Turnbull, 1986). "가족"하면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모습을 떠올리나,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천에 따라 가족의 특징도 변화하여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유영주, 1984).

또한 산업혁명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발달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의 가족 이주가 잦아지고 여성의 산업 진출이 증가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여파로 인하여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 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아동의 가족을 바르게 알고 아동과 가족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 변화 추세, 가족 모습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Simpson, 1990). 이런 의미에서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를 이해하기 위해 장애아 가정의 가족 구조 특성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족의 구조는 가족구성원의 특징, 문화양식, 이념의 특징으로 이루어지고, 이 구성체들에는 또 다시 여러 가지 하위 구성체들이 있는데 모든 구성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 한다(김은

주, 1993).

가족 구성원의 특징은 가족의 규모, 개개인의 특성, 가족의 체제의 본질에 의해 형성되며, 장애아 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과 비슷한 가족 규모와 특성을 지녔더라도 장애아의 존재로 인해 또 다른 요구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중 장애아 가정의 비장애 형제는, 특히 맏딸은 장애 형제에 대한 책임을 맡음으로 해서 정서장애나 일탈을 나타내기 쉽다고 한다(Benson과 Turnbull, 1986). Murphy(1979)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비장애 형제들은 자신의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한다고 했다. 즉, 가족 구성원 중 장애아가 있다고 하는 구조적 특성은 가족 요구의 변화를 가져오고 한 구성원이 비장애 형제에게 영향을 주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 구조에는 가족 나름대로의 독특한 배경에 근거한 가족의 관습, 전통, 신념들로 구성된 문화 양식이 있는데 이런 요인들은 장애아에 대한 가족의 반응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Turnbull과 Turnbull, 1986). 즉 문화 양식 중 가족의 종교적 믿음은 장애아에 대한 부모·형제들의 수용에 주요 요인이 되어 장애아를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adasy, 1984).

또 사회·경제적 지위도 가족이 장애아의 출생에 대해 반응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Grossman, 1972). 즉 SES가 높은 경우 대개 성취지향적이어서 장애아의 출생을 비극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야망이 좌절되었다고 느끼는데 이러한 가족의 형제는, 특히 남아는 장애라고 하는 좌절에 대한 보상으로 지나치게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는다. SES가 낮은 가족에서는 장애아 출생을 비극적인 위기로 여기기보다 일생동안 져야 하는 장애아 보호 책임에 대처할 가족 자원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가정에서는 특히 만딸이 장애아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일부 혹은 전부 맡고 있어서 중압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가족구조의 주요 요소에는 가족의 이념도 있는데 이것은 가족의 신념, 가치관, 대처 행동에 근거를 두고 있다(Benson과 Turnbull, 1986). 이러한 가족 이념은 장애아 출생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만들어 내는데 그것은 비장애 형제의 태도를 예언하는 변인이 된다고 한다(Grossman, 1972; Trevino, 1979). 즉 장애아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비장애 형제가 장애아 형제를 가족으로 수용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 구성원의 특성과 가족의 문화적·이념적 특성들은 장애를 보는 시각을 결정하며, 장애아에 대한 태도나 반응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가족 구조에서 설명되는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아의 특성, 즉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형제의 성별이나 출생순위와 같은 형제 구성형태, 그리고 가족 나름의 독특한 문화적·이념적 특성에 의해 형성되는 부모의 태도 변인들이 비장애 형제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2) 장애아 가정의 가족 기능과 비장애 형제

가족 기능이란 가족이 스스로 존속과 유지, 그리고 사회에 의하여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최재율, 1988). 그런데 장애아 가정의 경우 장애아로 인한 의료적 보호, 교육 및 기타 서비스 등의 소비가 증가할 뿐 아니라 장애아 보호를 위해 시간이 많이 소모되어 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고 한다(Skrtic, 1984).

그래서 장애아 가족은 여러 면에서 경제적 문제에 당면하게 되고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는 바로 이런 문제 중 전부 혹은 일부를 해결해야 하기도 하고 장애아가 성장함에 따라 재정 지원 책임이 비장애 형제에게도 맡

겨진다고 한다. 또 장애아 가족은 장애아 보호의 책임이 부모로부터 비장애 형제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무언의 혹은 명백한 동의를 하게 되어 (Seligman, 1983) 어떤 경우 비장애 형제는 성인 장애자 형제에 대한 보호 책임을 싫어하거나 저항하기도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Skrtic, 1984). 또한 장애 형제를 또래나 이웃들의 차별 대우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강압감을 느낀다고 한다(Skrtic, 1984). 장애아 가족 중에서도 만발이 이런 책임이 자신들의 시간을 빼앗아서 싫다고 보고했다(Seligman, 1983).

장애아 가족은 장애아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하는 여가 활동에 접근하기가 힘들거나 기회 부족으로 제한을 받게 되고, 가족전체가 참여하는 여가 활동도 드물게 된다고 지적했다(Skrtic, 1984). 또 그는 장애아 가정의 부모가 장애아를 위해 시간과 돈을 소비했기 때문에 비장애 자녀로 하여금 다른 여가 활동을 하게 하거나 강습을 받게 할 형편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아에게 있어서 비장애 형제는 유일한 놀이 친구가 되기 때문에 장애아의 여가를 위해 비장애 형제가 자신의 여가를 즐기도록 할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 구성원은 사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집단, 가족, 사회의 기대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키워 나가게 되는데(송성자, 1987), 장애아 가정의 비장애 형제는 가족이 가족성원에 대해 사회화 기능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다. 즉 비장애 형제는 장애 형제에게 짓궂게 하는 부정적인 사회성을 나타낸 후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 꺼려하는 위축성 내지 당황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족은 또 가족원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장애아

가족에 있어서 장애아보다 어린 일반 형제는 자신만 정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 비합리적인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감정으로 인해 무거운 부담감을 해소하려고 일부러 성취면에서 뒤쳐지기도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Trevino, 1979). 장애아 가정의 비장애 형제는 또 부모가 장애 형제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고 인식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느낀다고 한다.

한 가족내의 형제들은 동일화 과정을 통해서 서로 그들의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강한 추진력을 지니는데 장애아 가족에 있어서 이런 형제간의 강한 동일시에 대한 추진력은 비장애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이 비장애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면에서는 장애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보고하였다(Zetlin, 1986). 또 장애아 가정의 부모는 대개 그들의 비장애 자녀가 장애아의 한계를 보충하길 바라면서 성취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여 형제들에게 강한 압박감을 준다는 보고도 있다(Trevino, 1979).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구체적으로 장애 형제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잠재성을 지니고 있지만 장애아의 존재가 가족 기능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보고도 있다.

한편 장애아의 부모들은 장애 자녀를 통해 사랑하고 용서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며, 하찮은 일들도 좋게 느끼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어 장애아가 가족 기능의 정서, 자아정의, 지도 측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Benson과 Turnbull, 1986). 비장애 형제 역시 장애 형제가 가족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여기고 있으며, 장애 형제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즉 비장애 형제도 장애 형제가 집을 지킬 수 있고, 마당을 쓸 수 있으며, 동생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한다고 보았다(Turnbull과 Turnbull, 1986). 어느 비장애 형제는 장애 형제와 함께 집안의 일을 함께 하고 돌봄으로써

자신이 장애 형제를 더 잘 다룰 줄 안다고 믿고 있으며 또 장애아의 가족은 가족이 정서적으로 기능하는 과정에서 장애아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 자원을 정비함으로써 응집력 있는 정의적 연대감과 특별한 감정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보고되었다(Seligman, 1983).

이와 같이 장애아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장애 형제에게 나타나는 결과 혹은 비장애 형제의 반응을 볼 때, 비장애 형제는 가족이 기능하는 가운데에서 장애아에 대해 더 수용적이고 지지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에게 오는 가족의 비기능적인 측면을 보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장애아 가정의 형제관계

최근의 장애아를 위한 교육은 정상화, 탈수용화, 제한성이 최소화된 환경에의 배치라는 통합교육 이념이 강조되면서 장애 형제가 그의 비장애 형제와 한 가정에 있게 되고,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비장애 형제가 새로운 사건에 부딪히고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자 부모와 전문가들은 장애아의 형제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장애를 지닌 형제가 한 가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비장애 형제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는 못한다. 실제로 형제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장애 형제가 부담이 된다고 하는 보고에서부터 장애 형제로 인해 기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보고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 형제의 중요성

형제관계는 다른 관계와는 달리 일생동안 결정적인 단계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신체적, 정서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서로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한다(유영주, 1984; Powell과 Ogle, 1985). 비록 아동들이 형제보다 부모와 더 긍정적으로 많은 상호작용을 나타낸다(Baskett과 Johnson, 1982)지만, 형제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여러 경험의 결과는 부모가 제공할 수 없는 다른 측면에서 아동의 정서적, 지적, 사회적 행동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Mussen, Conger, Kagan, 1980). 또 한편 최근 사회의 주요 변화들로 인해 형제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즉 가족규모의 감소 현상으로 형제들이 서로 밀접하게 접촉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었고, 수명의 연장으로 형제들은 서로 상대방의 종단적지지 자원이 되며, 가족의 잦은 이사로 인해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지자 형제에게 더욱 더 의존하게 되었다(Bank와 Kahn, 1982). 또 이혼과 재혼의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형제들이 당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며 부모보다 형제가 지켜보는 환경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 형제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스트레스 가중으로 부모의 정서적인 부재현상이 나타나 형제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자 형제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는 서로에게 놀이 친구와 공부 친구가 되고, 교사 및 학습자의 역할을 하며, 서로 보호하고 의존하는 관계이면서 적이 되거나 경쟁자가 됨으로서 정서적, 지적, 사회적 발달의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유영주, 1984). 한편 장애아에 있어 비장애 형제는 장애아의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부모의 대리역할을 함으로써 중요한 존재가 될 뿐 아니라 장

애아의 유일한 놀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장애 형제가 또래로부터 소외될 때조차도 어울려 줌으로써 장애아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Crnic, 1986).

그러나 비장애 형제에게 있어서 장애 형제는 어떤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장애아 가정의 비장애 형제의 경우는 장애 형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동들이 가정에서 형제관계를 통해 경험하는 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이 장애아 가정의 비장애 형제에게 항상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형제가 장애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많은 아동들이 형제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놓칠지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아를 위해 장애아에 대한 비장애 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비장애 형제의 발달을 위해서 장애아 가정의 형제관계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장애아와 비장애 형제의 형제관계

형제 관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족 내 장애아의 존재가 비장애 형제에게 어떤 독특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심이 있어 왔다. 이런 연구의 대부분은 장애아가 부모의 입장에서 더 많은 보호와 자원을 요구하게 되므로 비장애 형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부모의 관심을 장애 형제에게 빼앗기고, 그들에게 지나친 보호책임을 부과할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한 예로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는 자신들이 대부분의 아이들 보다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받는다고 말하며, 심리적 문제에 대한 위협성을 훨씬 많이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Seligman, 1983). 그러나 일반적으로 형제관계를 보면 장애 형제가 있는 비장애 형제들이 그

런 경험이 없는 비교 대상보다 더 좋은 적응을 하는지, 나쁘게 적응을 하는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따라서 장애아 가정환경이 비장애 형제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을 통해 형제가 나타내는 양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장애 형제가 장애아와의 형제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면, 장애아와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부정적이거나 큰 어려움만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대개 비장애 형제가 사회적으로 활동할 충분한 기회를 갖고 있으며 동료관계를 유지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만족스런 가족관계를 나타낸다고 한다.

즉 비장애 형제들은 장애 형제와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인내심과 동정심이 증가되었으며, 자신의 건강과 지능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가족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한다고 보고했다(Cleveland와 Miller, 1977). 그리고 장애 형제 때문에 불편한 점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가족이 전체적으로 잘 적응하여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없다고 했다. 장애아가 한 가정에 있고 그로 인해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지만 장애아에 대한 형제 관계가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장애 형제로 인해 좋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비장애 형제들이 장애 형제와의 경험을 통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비장애 형제들이 장애 형제와의 경험을 통해 죄책감, 수치심, 부모가 자신을 소홀히 여긴다고 하는 느낌, 그리고 자신이 뭔가 부족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느낌과 장애 형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형제

관계 연구에서 주로 형제의 역할과 역할의 균형에서 장애 형제가 비장애 형제를 방해하게 되어 비장애 형제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다.

3. 장애아 가정이 비장애 형제에게 미치는 영향

여기에서는 장애아 가정의 상호작용 패턴과 형제의 구성형태가 비장애 형제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장애아 가정의 상호작용 패턴과 비장애 형제

일상적으로 가족구성원 개인들 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적 체제의 주요한 구성체에는 하위체제, 응집력, 적응, 의사소통이 있는데, 전통적인 핵가족 내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하위체제는 부부간, 부모-자녀간, 형제간, 가족외 사람간의 하위체제 이 네 가지로 구성된다고 한다(Benson과 Turnbull, 1986).

가족체제이론에 의하면 하위체제 중 어느 하나에 영향을 준 사건은 필연적으로 가족을 통해 영향력을 나타내고 다른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Turnbull과 Turnbull, 1986). 이것은 장애아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장애아 한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로 그쳐서는 안되며 다른 모든 하위체제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Lobato(1986)은 가족 구성원을 함께 모으는 가족의 응집성 정도에 따라 비장애 형제에게 적용되는 여러 양상들을 고려하여 장애아 가정이 비장애 형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발달을 위한 자극,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정도 및 허용성, 경험의 다양성들이 장애아 가정의 형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새로운 혹은 변화하는 환경에 순응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하는 가족의 적응성에서도 가족이 양극단에 놓이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형태를 나타낸다고 한다(Benson과 Turnbull, 1986). 그런데 이런 가족의 적응성은 대개 부모가 자녀양육 문제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거나, 가족 나름의 규칙이 정해져 있는지의 측면에서 나타나므로 이런 요소를 포함하는 가정환경의 정서적인 분위기가 비장애 형제의 장애 형제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가족이 분명한 의사소통의 채널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방법과 수단을 개발해야 하는데 자주 대화하면서 의미 있거나 정서적인 주제를 거의 논의하지 않는 경우나, 혹은 대화의 기회가 적어서 정서적 주제에 관한 논의가 제한되는 경우 모두 문제가 된다고 한다(Benson과 Turnbull, 1986). 장애아 가정의 비장애 형제에 관한 연구에서도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의사소통 스타일이 중요하며, 개방된 대화와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한다(Simeonsson, 1981). 따라서 가족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등의 언어적 환경이 비장애 형제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2) 장애아 가정의 비장애 형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장애아 가정의 비장애 형제에 관한 연구들은 비장애 형제들이 장애 형제와 함께 지낸다고 하는 경험으로 인해 일반적인 가족의 형제들보다 더 잘 적응한다든지 혹은 잘 적응하지 못한다든지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다(Zetlin, 1986). 그러나 그러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에게, 혹은 그들의 행동이나 적응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본다. 장애아 가정의 비장애 형

제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형제의 성, 연령, 출생순위, 부모의 태도나 준거기준과 같은 특성들이 비장애 형제의 행동이나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고(Crnic과 Leconte, 1986; Lobato, 1986; Zetlin, 1986), 장애 형제의 장애특성(Lobato, 1986; Vadasy et al., 1984),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Grossman, 1972), 장애아와의 동거여부(Fowle, 1968; 이경희, 1990, 재인용) 등의 변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장애아가 아들일 때 형제에게 주는 압박감이 심하고, 특히 같은 성일 때 즉 남자 형제인 경우 압박감이 더욱 심하다고 했다(Grossman, 1972). 또한 장애 형제와 같은 성일 때 남자 형제는 장애 형제에 대한 보상으로 지나치게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여자 형제는 장애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여자 형제들이 장애 형제와 관련하여 남자 형제들보다 더 많이 개입되고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Vadasy, 1984). Lobato(1986)는 비장애 형제들이 자신의 비장애 형제와 장애 형제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서 성과 관련하여 차이가 없었으며, 형제의 성이 그들의 행동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김명선(1987)은 남자 형제들도 장애 형제를 보상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아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고 남자 형제들이 여자 형제들보다 더 심한 갈등 문제를 보인다고 했다. 이렇듯 모든 연구에서 일치하는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 형제로 인한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형제의 성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어 비장애 형제의 장애 형제에 대한 태도에서 형제의 성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출생순위에 따라 경쟁, 동일시, 역할과 관련된 갈등은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보다 어린 경우, 혹은 맏딸인 경우 더 심해진다고 한다

(Vadasy, 1984). 즉 Farber(1970)에 의하면 장애아보다 어린 비장애 형제는 동등한 입장에서 장애 형제와 놀이하다가 성장함에 따라 자신들이 더 우세한 입장에 놓이게 됨으로 자신의 역할을 재 정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비장애 형제는 자기보다 순위인 장애 형제보다 무엇이든 더 잘 하는 것에 대해 나쁘게 생각한다고 한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동생인 정상인 자녀의 능력을 억압하여 그가 그의 장애를 가진 형보다 더 잘 하지 않게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 동생은 부모들이 자주 장애 형제를 그들의 또래집단활동에 끼어 주길 요구하기 때문에 장애 형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장애아의 손아래 형제가 더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했다.

형제의 연령과 연령터울을 보면, 장애인 형제와 연령 터울이 적은 비장애 형제가 더 파괴적이고 연령차가 큰 형제들보다 더 자주 사회적으로 불만을 지닌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아동들은 또래들이 장애 형제에 대해 더 자주 질문하여 그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려움도 경험하게 된다(Trevino, 1979). Grossman(1972)의 연구에서도 형제가 연령터울이 적을수록 더 심한 갈등 관계를 보였다. Begun(1989)은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보다 나이가 많고 연령 터울이 큰 경우 그들의 관계에 더 만족한다고 밝혔다. 김명선(1987)도 비장애 형제들 중 나이가 어린 형제들이 나이 많은 형제들보다 심한 갈등을 나타낸다고 보고했다.

그외 장애의 특성(Vadasy, 1984), 형제 수(Trevino, 1979), 형제의 기질(Crnic과 Leconte, 1986), 가족의 규모(Grossman, 1972) 등이 장애아 가정의 비장애 형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장애아 가정의 비장애 형제에 관한 연구들은 비장애 형제들

이 장애 형제와 함께 지낸다는 경험으로 인해 일반적인 가족의 형제들보다 더 잘 적응한다든지 혹은 잘 적응하지 못한다든지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다(Zetlin, 1986). 그러나 그런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에게, 혹은 그들이 행동이나 적응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

4.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갈등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들은 장애를 가진 형제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자기 비하, 수치감, 죄책감, 분노, 부모의 보상심리에 대한 부담감, 장애 형제의 장애에 대한 부담감 등을 느끼며,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서는 의사소통상의 곤란과 상호 간의 이해 부족에 대한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장애 형제를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정서적 반응에서도 갈등을 겪으며, 사회생활에서도 장애 형제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갈등을 느끼거나 장애 형제로 인해 사회활동에서 위축되기도 한다(김명선, 1987).

또한 Meyer와 Vadasy(1994)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들은 자신의 장애 형제와 자신을 과잉 동일시하고 장애 형제로 인해 당황함을 경험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수치심, 소외감, 외로움, 상실감, 분노, 과중한 책임감, 성취에 대한 압력을 느낀다고 한다. 모든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들이 이러한 감정을 모두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러한 관심사 중 몇 가지씩은 가지고 있다(전혜인, 1997, 재인용).

자신의 장애 형제와의 동일화가 심한 비장애 형제의 경우에 자신도 장애를 지녔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거나, 장애를 지니게 될 것으로 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잉 동일시는 특히 장애 형제의 장애 상태가 경

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애일 경우에 더욱 심하다(Grossman, 1972). 또한 Miller(1974)의 연구에 의하면 과잉 동일시는 장애를 지닌 동생을 가진 비장애 형제보다는 순위 장애 형제를 가진 비장애 형제에게서 많이 보였음을 알 수 있다(전혜인, 1997, 재인용).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가 과잉 동일시를 보인다는 사실은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에게 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게 할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킨다.

또한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는 장애 형제로 인해 당황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 (Vadasy, 1984) 이것은 장애 형제로 인하여 원치 않는 주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비장애 형제는 장애 형제의 장애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만 장애를 겪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죄책감을 지니기도 한다(Powell, 1985).

그리고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들이 흔히 경험하는 감정 중에 소외감과 외로움, 상실감도 있다(Powell, 1985). 부모들이 장애 형제로 인해 너무 지쳐있거나 비장애 형제가 관심 받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 형제는 부모에게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들은 ‘정보’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다(전혜인, 1997, 재인용). 장애아의 부모들은 비장애 형제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픔을 겪을까봐 형제의 장애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거나, 장애가 주는 낙인 때문에 형제의 장애를 가족의 비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들은 의문과 고민을 지닌 채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들이 흔히 갖는 감정 중에 또 한가지는 분노이다 (Grossman, 1972). 가정에서 장애아에게 허용되는 것이 자신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 등 부모의 불공평한 대우와 과도한 요구,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장애 형제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이다.

이와 같이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들은 장애 형제를 지님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겪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장애 형제를 지님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여기에서는 연구대상, 조사도구, 자료처리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내의 2개 특수학교와 1개 복지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12개 특수학교, 대전 및 충남 지역의 4개 특수학교와 2개 직업전문학교, 대구의 2개 직업전문학교, 부산의 2개 특수학교, 광주의 2개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의 형제를 대상으로 5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이중 237부(회수율 47.4%)가 회수되었으며 자료 회수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거나 통계로서 가치가 없는 것 18부를 제외한 219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질문지 응답 현황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질문지 응답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구분			
	남		여	
성별	117		102	
나이	만 20 - 25세	만 26 - 30세	만 31 - 35세	만 36세 이상
	108	51	24	36
동거 여부	장애 형제와 동거		장애 형제와 별거	
	168		51	
서열 관계	장애 형제의 순위		장애 형제의 손아래	
	168		51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I. 비장애 형제의 기초정보에 관한 문항들 ; 비장애 형제의 나이, 성별 등에 관한 정보이다. 이 질문지는 비장애 형제의 장애 형제로 인한 갈등과 상관이 있는 형제의 성별 및 나이, 장애 형제와의 동거 여부, 서열관계 등을 알기 위해 구성되었다. (부록참조)

II.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갈등 측정도구 ; 본 연구에서는 중앙직업적성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표준화적응진단검사」를 참고하여 김명선(1987)이 개발한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갈등 측정도구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한 6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방식을 적용하여 평균점수 1점에서 5점 범위로 환산하였다(단 26, 34, 53, 54, 59, 62, 67, 68번은 역산처리 한다). 따라서 채점 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변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검사의 하위변인과 문항수는 <표 III-2>과 같다.

<표 III-2>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갈등의 하위변인과 요인별 해당 문항

하 위 변 인	요 인	해 당 문 항	문 항 수
장애 형제에 대한 갈등	자기비하	9, 20, 31, 40	4
	수 치 감	19, 30, 39, 48	4
	죄 책 감	8, 18, 38, 47, 56	5
	분 노	7, 17, 29, 46	4
	부모의 보상심리에 대한 부담감	6, 16, 28, 37	4
	장애 형제의 장래에 대한 걱정	15, 27, 45, 55	4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	의사소통상의 곤란에 대한 갈등	5, 14, 26, 54, 60, 63, 65, 68	8
	상호간의 이해 부족에 대한 갈등	13, 25, 36, 44, 53, 59	6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갈등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갈등	4, 12, 24, 35, 52, 62	6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갈등	3, 11, 23, 34, 43, 51, 58, 61	8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장애 형제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대한 갈등	2, 10, 22, 33, 42, 50	6
	사회활동에서의 갈등	1, 21, 32, 41, 49, 57, 64, 66, 67	9
계			68

3. 자료처리

회수된 자료는 $p < .05$, $p < .01$ 수준에서 t검증과 F검증을 사용하여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았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그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형제에 대한 갈등

<가설 1-1> 비장애 형제의 성별에 따라 장애 형제에 대해 갖는 갈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IV-1> 비장애 형제의 성별에 따른 장애 형제에 대한 갈등

구 분		남 (n=117)	여 (n=102)	t
자기비하	M	13.69	14.53	-1.72
	<i>SD</i>	3.44	3.74	
수치감	M	12.79	12.97	-.39
	<i>SD</i>	3.55	3.11	
죄책감	M	13.90	14.97	-2.65 **
	<i>SD</i>	2.98	3.00	
분노	M	13.62	14.32	-1.50
	<i>SD</i>	3.21	3.77	
부모의 보상심리에 대한 부담감	M	11.95	13.85	-4.00 **
	<i>SD</i>	3.57	3.44	
장애 형제의 장래에 대한 걱정	M	10.08	10.12	-.10
	<i>SD</i>	2.32	3.29	
계	M	76.03	80.76	-2.22 *
	<i>SD</i>	15.51	16.02	

(* p<.05 ** p<.01)

<표 IV-1>를 보면 장애형제에 대한 갈등은 비장애 남자형제와 여자형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2.2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05$).

자기비하, 수치감, 분노, 장애형제의 장래에 대한 걱정은 남자 비장애 형제와 여자 비장애 형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죄책감($t=2.65$), 부모의 보상심리에 대한 부담감($t=4.00$)은 남자 비장애 형제와 여자 비장애 형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따라서 장애형제에 대한 갈등은 전체적으로 비장애 여자형제($M=80.76$)가 비장애 남자형제($M=76.03$)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죄책감은 여자 비장애 형제($M=14.97$)가 남자 비장애 형제($M=13.90$)보다 더욱 높고, 부모의 보상심리에 대한 부담감 역시 비장애 여자 형제($M=13.85$)가 비장애 남자형제($M=11.95$)보다 뚜렷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정에서 장애 형제를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여자 비장애 형제에게 보다 많이 부과되는 것에서 오는 결과이며, 여자 비장애 형제들이 남자 비장애 형제들보다 장애 형제로부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있어 적극적이지 못함을 나타낸다.

<가설 1-2> 비장애 형제의 나이에 따라 장애 형제에 대해 갖는 갈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IV-2> 비장애 형제의 나이에 따른 장애 형제에 대한 갈등

구 분		20-25 (n=108)	26-30 (n=51)	31-35 (n=24)	36이상 (n=36)	계 (n=219)	F
자기비하	M	13.33	14.29	15.38	15.17	14.08	3.89 *
	SD	3.42	3.56	4.76	2.77	3.60	
수치감	M	12.33	13.41	13.38	13.42	12.88	1.90
	SD	2.81	3.41	5.78	2.25	3.34	
죄책감	M	14.17	14.18	15.88	14.42	14.40	2.24
	SD	2.66	2.94	4.61	2.73	3.03	
분노	M	13.50	14.47	14.88	13.92	13.95	1.55
	SD	3.19	2.64	4.38	4.56	3.50	
부모의 보상심리에 대한 부담감	M	11.92	12.88	14.13	14.67	12.84	6.89 **
	SD	3.43	3.65	5.02	1.82	3.63	
장애 형제의 장래에 대한 걱정	M	9.81	10.00	10.75	10.67	10.10	1.34
	SD	2.38	1.80	4.17	3.85	2.81	
계	M	75.06	79.24	84.38	82.25	78.23	3.59 *
	SD	14.19	14.59	25.29	12.55	15.89	

(* p<.05 ** p<.01)

<표 IV-2>를 보면 비장애 형제의 나이별로도 장애형제에 대한 갈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3.59)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05).

수치감, 죄책감, 분노, 장애형제의 장래에 대한 걱정은 나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비하는 나이에 따라 5%의 유

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t=3.89$), 부모의 보상심리에 대한 부담감($t=6.89$) 역시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따라서 장애형제에 대한 갈등은 전체적으로 31-35세의 비장애 형제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M=84.38$) 다음이 36세 이상($M=82.25$), 26-30세($M=79.24$), 20-25세($M=75.06$)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장애 형제의 장애형제에 대한 죄책감, 부모의 보상심리에 대한 부담감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높다.

이는 결혼적령기가 넘어도 미혼인 이유를 장애를 가진 형제에게서 찾으려는 경향을 어느 정도 내포한 결과라고 보겠다.



<가설 1-3>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장애 형제에 대해 갖는 갈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IV-3>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장애 형제에 대한 갈등

구 분		동거 (n=168)	별거 (n=51)	t
자기비하	M	13.95	14.53	-1.16
	<i>SD</i>	3.77	2.94	
수치감	M	12.88	12.88	-.01
	<i>SD</i>	3.49	2.83	
죄책감	M	14.34	14.59	-.51
	<i>SD</i>	3.07	2.92	
분노	M	14.05	13.59	.99
	<i>SD</i>	3.71	2.68	
부모의 보상심리에 대한 부담감	M	12.89	12.65	.42
	<i>SD</i>	3.78	3.12	
장애 형제의 장애에 대한 걱정	M	10.00	10.41	-1.17
	<i>SD</i>	3.03	1.87	
계	M	78.11	78.65	-.21
	<i>SD</i>	16.66	13.16	

<표 IV-3>을 보면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에 대해 갖는 갈등이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보면 장애 형제와 동거하는 경우에 갈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조사에 응한 비장애 형제와 장애 형제가 별거하는 경우에도 장애 형제가 정기적으로 집으로 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가설 1-4>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에 따라 장애 형제에 대해 갖는 갈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IV-4>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에 따른 장애 형제에 대한 갈등

구 분		손위 (n=168)	손아래 (n=51)	t
자기비하	M	14.09	14.06	.05
	SD	3.31	4.47	
수치감	M	12.82	13.06	-.35
	SD	2.86	4.61	
죄책감	M	14.29	14.76	-.99
	SD	2.85	3.58	
분노	M	13.96	13.88	.13
	SD	3.22	4.31	
부모의 보상심리에 대한 부담감	M	12.59	13.65	-1.83
	SD	3.49	3.99	
장애 형제의 장래에 대한 걱정	M	9.75	11.24	-3.39 **
	SD	2.77	2.65	
계	M	77.50	80.65	-1.04
	SD	14.40	20.01	

(** p<.01)

<표 IV-4>를 보면 장애형제에 대한 갈등은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 형제의 장래에 대한 걱정은 장애 형제의 손위 비장애 형제와 손아래 비장애 형제간에 유의한 차이($t=3.3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따라서 장애형제에 대한 갈등은 전체적으로 서열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장애 형제의 장래에 대한 걱정은 손아래 비장애 형제($M=11.24$)가 손

위 비장애 형제(M=9.75)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

<가설 2-1> 비장애 형제의 성별에 따라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 갖는 갈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V-1> 비장애 형제의 성별에 따른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

구 분		남 (n=117)	여 (n=102)	t
의사소통상의 곤란에 대한 갈등	M	22.62	23.38	-1.45
	<i>SD</i>	4.37	3.26	
상호간의 이해 부족에 대한 갈등	M	19.36	20.09	-1.63
	<i>SD</i>	3.16	3.48	
계	M	41.97	43.47	-1.78
	<i>SD</i>	6.47	5.88	

<표 V-1>를 보면 장애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은 장애 형제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2> 비장애 형제의 나이에 따라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 갖는 갈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V-2> 비장애 형제의 나이에 따른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

구 분		20-25 (n=108)	26-30 (n=51)	31-35 (n=24)	36이상 (n=36)	계 (n=219)	F
의사소통상의 곤란에 대한 갈등	M	22.69	22.41	25.88	22.67	22.97	5.33 **
	SD	3.66	4.11	4.64	3.02	3.90	
상호간의 이해 부족에 대한 갈등	M	19.14	20.06	22.50	19.00	19.70	8.16 **
	SD	3.34	3.01	3.75	2.34	3.32	
계	M	41.83	42.47	48.38	41.67	42.67	8.48 **
	SD	6.14	6.29	6.30	4.29	6.23	

(** p<.01)

<표 V-2>를 보면 비장애 형제의 나이별로 장애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8.48)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01).

의사소통상의 곤란에 대한 갈등은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F=5.33), 상호간의 이해 부족에 대한 갈등(F=8.16) 역시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따라서 장애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은 전체적으로 31-35세의 비장애 형제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M=48.38) 다음이 26-30세(M=42.47), 20-25세(M=41.83), 36세 이상(M=41.6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결혼적령기가 넘어도 미혼인 이유를 장애를 가진 형제에게서 찾으려는 경향이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가설 2-3>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 갖는 갈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V-3>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

구 분		동거 (n=168)	별거 (n=51)	t
의사소통상의 곤란에 대한 갈등	M	23.11	22.53	1.13
	<i>SD</i>	4.18	2.82	
상호간의 이해 부족에 대한 갈등	M	19.68	19.76	-.16
	<i>SD</i>	3.20	3.74	
계	M	42.79	42.29	.49
	<i>SD</i>	6.57	4.99	

<표 V-3>을 보면 장애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은 장애 형제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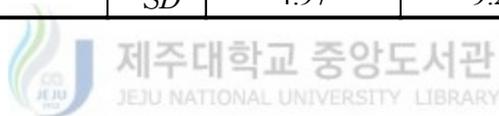
표면적으로 보면 장애 형제와 동거하는 경우에 갈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조사에 응한 비장애 형제와 장애 형제가 별거하는 경우에도 장애 형제가 정기적으로 집으로 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가설 2-4>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에 따라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 갖는 갈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V-4>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에 따른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

구 분		순위 (n=168)	손아래 (n=51)	t
의사소통상의 곤란에 대한 갈등	M	22.57	24.29	-2.16 *
	<i>SD</i>	3.23	5.41	
상호간의 이해 부족에 대한 갈등	M	19.71	19.65	.10
	<i>SD</i>	2.87	4.54	
계	M	42.29	43.94	-1.23
	<i>SD</i>	4.97	9.20	

(* p<.05)



<표 V-4>를 보면 장애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은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사소통상의 곤란에 대한 갈등은 장애 형제의 순위 비장애 형제와 손아래 비장애 형제간에 유의한 차이($t=2.1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장애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은 전체적으로 서열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의사소통상의 곤란에 대한 갈등은 손아래 비장애 형제 ($M=24.29$)가 순위 비장애 형제($M=22.57$)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장애 형제가 의사소통기능에 어려움을 가졌다는 것을 수용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갈등

<가설 3-1> 비장애 형제의 성별에 따라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서 갖는 갈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VI-1> 비장애 형제의 성별에 따른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갈등

구 분		남 (n=117)	여 (n=102)	t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갈등	M	17.90	18.41	-.92
	<i>SD</i>	3.76	4.40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갈등	M	23.59	24.53	-1.27
	<i>SD</i>	5.66	5.18	
계	M	41.49	42.94	-1.19
	<i>SD</i>	8.99	9.01	

<표 VI-1>를 보면 장애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갈등은 비장애 형제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2> 비장애 형제의 나이에 따라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서 갖는 갈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VI-2> 비장애 형제의 나이에 따른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갈등

구 분		20-25 (n=108)	26-30 (n=51)	31-35 (n=24)	36이상 (n=36)	계 (n=219)	F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갈등	M	17.97	18.29	20.38	16.92	18.14	3.72 *
	SD	3.77	3.66	5.16	4.23	4.07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갈등	M	23.50	24.47	25.75	23.83	24.03	1.27
	SD	5.32	4.78	8.01	4.53	5.45	
계	M	41.47	42.76	46.13	40.75	42.16	2.17
	SD	8.69	8.06	12.50	8.01	9.01	

(* p<.05)

<표 VI-2>를 보면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갈등은 비장애 형제의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갈등은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3.72)(p<.05).

따라서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갈등은 전체적으로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갈등은 전체적으로 31-35세의 비장애 형제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M=20.38) 다음이 26-30세(M=18.29), 20-25세 (M=19.97), 36세 이상(M=16.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적령기가 넘어도 미혼인 자신의 처지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둘러싼 환경 중 부모의 태도에 관해서도 못마땅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설 3-3>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서 갖는 갈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VI-3>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갈등

구 분		동거 (n=168)	별거 (n=51)	t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갈등	M	18.34	17.47	1.75
	<i>SD</i>	4.41	2.60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갈등	M	24.09	23.82	.39
	<i>SD</i>	5.89	3.70	
계	M	42.43	41.29	1.05
	<i>SD</i>	9.82	5.55	

<표 VI-3>을 보면 장애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갈등은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보면 장애 형제와 동거하는 경우에 갈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조사에 응한 비장애 형제와 장애 형제가 별거하는 경우에도 장애 형제가 정기적으로 집으로 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가설 3-4>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에 따라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서 갖는 갈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VI-4>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에 따른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갈등

구 분		손위 (n=168)	손아래 (n=51)	t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갈등	M	17.89	18.94	-1.40
	<i>SD</i>	3.74	4.95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갈등	M	23.89	24.47	-.53
	<i>SD</i>	4.74	7.37	
계	M	41.79	43.41	-.91
	<i>SD</i>	7.85	12.08	

<표 VI-4>를 보면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갈등은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가설 4-1> 비장애 형제의 성별에 따라 사회생활에서 장애 형제로 인해 갖는 갈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VII-1> 비장애 형제의 성별에 따른 장애 형제로 인한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구 분		남 (n=117)	여 (n=102)	t
장애 형제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대한 갈등	M	16.54	17.06	-.93
	<i>SD</i>	4.41	3.73	
사회활동에서의 갈등	M	29.31	31.03	-2.33 *
	<i>SD</i>	5.78	5.06	
계	M	45.85	48.09	-1.96
	<i>SD</i>	9.23	7.45	

(* p<.05)

<표 VII-1>을 보면 장애 형제로 인한 사회생활에서의 갈등은 비장애 형제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활동에서의 갈등은 장애 형제의 남자 비장애 형제와 여자 비장애 형제간에 유의한 차이($t=2.3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장애 형제로 인한 사회생활에서의 대한 갈등은 전체적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사회활동에서의 갈등은 여자 비장애 형제 ($M=31.03$)가 남자 비장애 형제($M=29.31$)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자들의 사회활동이 여자들에 비해 비교적 사무적이고, 인간관계

가 표면적인 것에서 오는 결과이며, 사회활동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남자 비장애 형제들이 보다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설 4-2> 비장애 형제의 나이에 따라 사회생활에서 장애 형제로 인해 갖는 갈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VII-2> 비장애 형제의 나이에 따른 장애 형제로 인한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구 분		20-25 (n=108)	26-30 (n=51)	31-35 (n=24)	36이상 (n=36)	계 (n=219)	F
장애 형제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대한 갈등	M	16.72	16.71	18.50	15.92	16.78	1.97
	SD	3.51	16.72	6.26	4.02	4.11	
사회활동에서의 갈등	M	28.72	30.65	33.38	31.33	30.11	6.26 **
	SD	5.07	5.52	7.45	3.94	5.51	
계	M	45.44	47.35	51.88	47.25	46.89	4.02 **
	SD	7.74	7.89	13.26	6.21	8.50	

(** p<.01)

<표 VII-2>를 보면 비장애 형제의 나이별로 장애 형제로 인한 사회생활에서의 갈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4.0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01).

장애 형제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대한 갈등은 나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활동에서의 갈등은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6.26)(p<.01).

따라서 장애형제로 인한 사회생활에서의 갈등은 전체적으로 31-35세의 비장애 형제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M=51.88) 다음이 26-30세(M=47.35), 36세

이상(M=47.25), 20-25세(M=45.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30세 이후에 사회생활의 범위가 좀더 넓어지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를 자신의 장애 형제에게 투영하려는 결과라고 하겠다.

<가설 4-3>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사회생활에서 장애 형제로 인해 갖는 갈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VII-3>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장애 형제로 인한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구 분		동거 (n=168)	별거 (n=51)	t
장애 형제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대한 갈등	M	16.71	17.00	-.54
	SD	4.41	2.94	
사회활동에서의 갈등	M	30.16	29.94	.25
	SD	5.50	5.60	
계	M	46.88	46.94	-.05
	SD	8.91	7.07	

<표 VII-3>을 보면 장애 형제로 인한 사회생활에서의 갈등은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보면 장애 형제와 동거하는 경우에 갈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조사에 응한 비장애 형제와 장애 형제가 별거하는 경우에도 장애 형제가 정기적으로 집으로 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가설 4-4>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에 따라 사회생활에서 장애 형제로 인해 갖는 갈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VII-4>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에 따른 장애 형제로 인한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구 분		손위 (n=168)	손아래 (n=51)	t
장애 형제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대한 갈등	M	16.86	16.53	.41
	SD	3.68	5.31	
사회활동에서의 갈등	M	30.36	29.29	1.02
	SD	5.02	6.88	
계	M	47.21	45.82	.83
	SD	7.52	11.17	

<표 VII-4>를 보면 장애 형제로 인한 사회생활에서의 갈등은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가 느끼는 장애 형제에 대한 갈등,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갈등, 사회생활에서의 갈등의 정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대하여 형제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고, 장애아 가정이 원만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이론적 배경에서 장애아 가정과 비장애 형제, 장애아 가정의 형제관계, 장애아 가정이 비장애 형제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에 대해 갖는 갈등은 비장애 형제의 성별, 나이,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서 갖는 갈등은 비장애 형제의 성별, 나이,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서 갖는 갈등은 비장애 형제의 성별, 나이,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

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비장애 형제가 사회생활에서 장애 형제로 인해 갖는 갈등은 비장애 형제의 성별, 나이,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 장애 형제와의 서열관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비장애 형제의 성별, 나이, 동거여부, 서열관계에 따라 장애 형제에 대해 갖는 갈등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비장애 형제의 성별, 나이, 동거여부, 서열관계에 따라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서 갖는 갈등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비장애 형제의 성별, 나이, 동거여부, 서열관계에 따라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서 갖는 갈등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비장애 형제의 성별, 나이, 동거여부, 서열관계에 따라 사회생활에서 장애 형제로 인해 갖는 갈등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도내의 2개 특수학교와 1개 복지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12개 특수학교, 대전 및 충남 지역의 4개 특수학교와 2개 직업전문학교, 대구의 2개 직업전문학교, 부산의 2개 특수학교, 광주의 2개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의 형제 219명을 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I. 비장애 형제의 기초정보에 관한 문항들 ; 비장애 형제의 나이, 성별 등에 관한 정보이다. 이 질문지는 비장애 형제의 장애 형제로 인한 갈등과 상관이 있는 형제의 성별 및 나이, 장애 형제와의 동거 여부, 서열관계 등을 알기 위해 구성되었다.

II.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갈등 측정도구 ; 본 연구에서는 중앙직업적성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표준화적응진단검사」를 참고하여 김명선(1987)이 개발한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갈등 측정도구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한 68문항을 사용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p < .05$, $p < .01$ 수준에서 t검증과 F검증을 사용하여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장애 형제들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장애 형제에 대한 갈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즉 여자 비장애 형제($M=80.76$)가 남자 비장애 형제($M=76.03$)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31-35세의 비장애 형제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M=84.38$) 다음이 36세 이상($M=82.25$), 26-30세($M=79.24$), 20-25세($M=75.06$)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은 전체적으로 31-35세의 비장애 형제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M=48.38$) 다음이 26-30세($M=42.47$), 20-25세($M=41.83$), 36세 이상($M=41.67$)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갈등은 비장애 형제의 성별, 나이,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 및 서열관계에 따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넷째, 장애형제로 인한 사회생활에서의 갈등은 전체적으로 31-35세의 비장애 형제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M=51.88) 다음이 26-30세(M=47.35), 36세 이상(M=47.25), 20-25세(M=45.44) 순으로 나타났다.

2.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형제에 대한 갈등에서 여자 비장애 형제가 남자 비장애 형제보다 갈등이 더 높다. 이는 가정에서 장애 형제를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여자 비장애 형제에게 보다 많이 부과되는 것에서 오는 결과이며, 여자 비장애 형제들이 남자 비장애 형제들보다 장애 형제로부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있어 적극적이지 못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31-35세의 비장애 형제의 갈등이 가장 높다. 이는 결혼적령기가 넘어도 미혼인 이유를 장애를 가진 형제에게서 찾으려는 경향을 어느 정도 내포한 결과라고 보겠다.

둘째, 장애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은 전체적으로 31-35세의 비장애 형제가 가장 높다. 이 역시 결혼적령기가 넘어도 미혼인 이유를 장애를 가진 형제에게서 찾으려는 경향을 어느 정도 내포한 결과라고 보겠다.

셋째, 장애형제로 인한 사회생활에서의 갈등은 전체적으로 31-35세의 비장애 형제가 가장 높다. 이는 30세 이후에 사회생활의 범위가 좀더 넓어지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를 자신의 장애 형제에게 투영하려는 결과라고 하겠다.

3. 제언

본 연구의 결과로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형제의 비장애 형제가 가지는 갈등은 본인만의 변화로는 해소되지 않고 장애아의 생활교육, 부모교육, 사회계몽운동 등이 중요한 측면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특히 전문 사회사업가가 필요하며 사회복지기관의 지원과 사회의 공동 노력이 요청된다.

둘째, 비장애 형제의 성과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갈등간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Mchale(1986)의 연구에서 남자형제가 동성인 장애 형제에게 덜 지지적이라고 한 결과나, Begun(1989)의 연구에서 여자형제가 동성인 장애 형제에게 더 친사회적이라고 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었다. 출생순위에 있어서도 장애 형제에 대한 비장애 형제의 태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출생순위가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의 갈등이나 적응에 관련된다고 지적한 Zetlin(1986)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서 겪는 비장애 형제들의 갈등이 그들의 성별, 나이, 장애 형제와의 동거여부, 서열관계와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부모의 태도에 대해 갖는 갈등은 나이에 상관없이 형성된다는 김명선(1987)의 연구와는 일치하지만 장애 형제의 순위 비장애 형제가 손아래 비장애 형제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갈등을 많이 갖고 있다는 김명선(1987)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선행연구의 연구대상과 일치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었거나 연구된 비장애 형제의 태도 변인이 선행연구와 다른

데에서 기인되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비장애 형제의 연령범위를 넓게 하거나, 혹은 비장애 형제의 적응, 갈등 등 여러 측면을 다루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셋째. 장애아 가정의 비장애 형제에 관한 연구가 질문지에 의존했던 제한점을 보완하여 앞으로는 장애아와 비장애 형제의 형제관계를 직접 관찰하거나 직접 면접하는 방법, 그리고 가족 모두를 포함하는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할 때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심리들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본권의 9인(1993). **특수교육학**. 교육과학사.
- 김명선(1987). **정신지체아의 형제들이 갖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승국(1997). **특수교육학**. 양서원.
- 김은주(1993). **일반 형제의 장애 형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성자(1987).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서울 : 홍익대.
- 유영주(1984). **신가족 관계학**. 서울 : 교문사.
- 이경희(1993). **장애아동의 가족 스트레스와 적응의 구조 모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혜인(1997).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를 위한 형제지원프로그램이 비장애형제의 장애형제를 대하는 행동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재울(1988). **가족사회학**. 전남대학교출판부.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2002). **전국특수교육요람**. 도서출판 특수교육.
- Bank, S., & Kahn, M. D.(1982). "Sisterhood-brotherhood is powerful : Sibling sub-systems and family therapy", *Family Process*, 14, 311-337.
- Baskett, L. M. & Johnson, S. M.(1982). "The young child's interactions with parents versus siblings : A behavior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643-602.

- Begun, A. L.(1989). Sibling relationships involving developmentally disabled people,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3(5), 566-574.
- Benson, H. A., & Turnbull, A. P.(1986). Approaching families from an individualized perspective. In. R.H. Horner, L.H. Meyer, & H.D.B. Fredericks(Eds.), *Education of learners with severe handicaps Exemplary service strategies*. Baltimore : Paul. H. Brookes.
- Blacher, J.(1984). "A dynamic perspective on the impact of a severely handicapped child on the family". In J. Blacher(Ed.), *Severely handicapped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 Research in review*(pp.3-50). New York : Academic.
- Carter, E., & McGoldrick, M.(1980). The family life cycle and family therapy : An overview. *The family life cycle :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ew York : Gardner Press.
- Cleveland, E. W., & Miller, N.(1977). "Attitudes and life commitments of older siblings of mentally retarded adults". *Mental Retardation*, 15, pp38~41.
- Crnic, K. A. & Leconte, J. M.(1986). Understanding sibling needs and influences. In R.R. Fewell & Vadasy, P.F.(Eds) *Families of handicapped children*(pp. 75-98). Austin: PRO-ED.
- Farber, B.(1970). "Effects of a Severly Mentally Retarded Child

- on Family Integr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in child Development*, Vol.24 No.2
- Grossman, F. K.(1972). Brothers and sisters of retarded children : *An exploratory study*. Syracuse, NY : Syracuse University Press.
- Hoffman, L.(1980). The family life cycle and discontinuous change. In E. Cater & M. McGoldrick(Eds.),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 Lobato, D.(1986). *Sibling of Handicapped Children*, Vermont Univ., Burlington. ERIC ED 312946.
- Mussen, P. H., Conger, J. J, & Kagan, J. (1980).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International Ed.
- Murphy, A. T.(1979). Member of the family : "Sisters and bro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Volter Review*, 81, pp35 2~362
- Powell, R. H. & Ogle, P. A.(1985). *Brothers and sisters : A special part of exceptional families*. Baltimore : Paul. H. Brookes.
- Seligman, M.(1983). *The family with a handicapped children : Understanding and treatment*. Grune & Stratton, Inc.
- Simpson, R. L.(1990). *Conferencing parents exceptional children*. Austin, TX : PRO-ED. pp39~57.
- Skrtic, T. M., Summers, J. A., Brotherson, M. J., & Turnbull, A.

- P.(1984). Severly handicapped children and thier brothers and sisters, In J. Blacher(Ed.), *Severly handicapped young children and thier families*. Academic Press, 215-246.
- Simeonsson, R., & McHale, S.(1981). Review : Research on handicapped children : Sibling rerationships. *Child : Care, health and Development*, 7, 153-171.
- Trevino, F.(1979). "Siblings of handicapped children" : Identifying those at Risk. *Locial Casework : The Journal of Contemporary Locial Work*, pp488~493.
- Turnbull, A. P., & Turnbull, H. R.(1986). *Families, professionals, and exceptionality*. Merrill Publishing Company, pp1~112.
- Vadasy, P., Fewell, R., Meyer, D., & Schell, G.(1984). Siblings of handicapped children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family Interactions. *Family Relations*, 33, 155-167.
- Zetlin, A. G.(1986), "Mentally retarded adults and their sibling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91(3), pp217~225.

<Abstract>

The Study on the Psycho Conflict of Sibling with Non-Disabilit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Kim, Hyo Sook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 Soo

In the most recent field of special education, an ecological approach that is important to children and an interaction of each element which consists of environ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is aspect, servic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y is considered;

however, it is indicated that concern should be given to sibling with

* A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3.

non-disabilit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s a member of the family.

Therefore, for prosperity of the family, strategy that makes sibling with non-disabilities progress to achieve a peaceful relationship with sibling with disabilities was necessary in this study. Consequently,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it was investigated whether any difference appears in psycho conflict of sibling with non-disabilities as to sibling with disabilities, followed by changing factors, such as sibling' sex, birth rank, age and living together or not.

The sample size of this survey was 219 siblings with non-disabilit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attending school or welfare facilities in Jeju, Seoul, Pusan and so on.

2 sorts of the survey were used for collecting data. Those were basic information of siblings with non-disabilities, a psycho conflict scale of siblings with non-disabilities, and so forth, siblings with non-disabilities, objectives of this study, respond to each surve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 and t-test.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ir sist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conflict with them than their brothers.

Second, the siblings with non-disabilit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31-35 have conflict between their disabled siblings.

Third, the siblings with non-disabilit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31-35 have conflict in community life.



Ⅱ. 다음은 장애 형제로 인해 갖게 되는 심리적·사회적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한 문항 당 한 곳에만 V 표시해 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항	항상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장애 형제가 생각나면 다른 사람과 말하기조차 싫어진다.					
2	장애 형제를 이해해 주는 친구가 적어서 속이 상한다.					
3	장애 형제로 인해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속이 상한다.					
4	다른 형제들과 장애형제가 다투었을 때 부모님이 무조건 장애 형제의 편을 드는 것이 싫다.					
5	장애 형제에게 어떤 말을 전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답답하다.					
6	부모님은 내 능력으로는 힘이 들 정도로 장애형제를 이해해 줄 것을 요구한다.					
7	장애 형제만 보면 화가 난다.					
8	장애 형제에게 형제자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					
9	우리 집안에 장애아가 있는 것을 보니 혈통이 그리 훌륭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10	장애 형제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적이 있어 화가 난다.					
11	부모님은 장애 형제가 무슨 사고를 지지르지 않을까 항상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안하다.					
12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님의 과잉 지적이 듣기 싫다.					
13	장애 형제와는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다.					
14	장애 형제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15	장애 형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걱정된다.					
16	부모님은 장애 형제가 해야 할 몫까지 나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17	장애 형제 때문에 나의 어린 시절이 삭막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을 생각하면 분하다.					
18	장애 형제가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서 죄책감을 느낀다.					
19	장애 형제와 걸어가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다.					

	문 항	항상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	장애 형제가 있는 걸 보면 나의 운명이 나쁜 것 같다.					
21	장애 형제 때문에 이성 친구와 떳떳하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없다. (혹은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22	일반인들이 장애 형제를 호기심으로 쳐다보는 것이 괴롭다.					
23	부모님이 장애 형제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것 같아 괴롭다.					
24	부모님이 장애 형제의 고민에 대해 무관심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25	장애 형제가 부탁하거나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하기 싫어진다.					
26	장애 형제와는 분명한 언어 이외의 얼굴 표정이나 어조로도 잘 전달되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27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장애 형제에 대해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걱정된다.					
28	부모님이 장애 형제에게는 어느 정도 소홀한 대신에 나에게서는 더 정성을 기울이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					
29	장애 형제의 친구들을 보면 화가 난다.					
30	친구들이 장애 형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창피하다.					
31	장애 형제 때문에 나의 장래는 어두워질 것이다.					
32	장애 형제에 대해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					
33	일반인들이 장애 형제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34	부모님은 자신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기쁘다.					
35	부모님이 장애 형제를 과잉보호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36	장애 형제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37	장애 형제가 부모님께 실망을 준 만큼 내가 더 훌륭하게 되어주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38	장애 형제가 나의 정상적인 능력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					
39	길거리에서 장애 형제와 비슷하게 생긴 장애인을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같다.					
40	앞으로 결혼할 상대자가 나에게 장애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거절할 지도 모른다.					

	문 항	항상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41	친구들이 장애인을 싫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 친구와 사귀지 않는다.					
42	사회에서 장애 형제가 불쌍하다고 지나치게 동정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					
43	장애 형제의 출생에 대해 부모님이 항상 죄책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44	장애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시시하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든다.					
45	장애 형제가 나쁜 길로 빠질까봐 불안하다.					
46	장애 형제의 외모나 행동, 고집 등은 나를 화나게 한다.					
47	장애 형제와 함께 대화해 주는 시간이 거의 없어 미안하다.					
48	나에게 장애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싫다.					
49	술 마시면 취하여 장애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두려워서 친구들과의 술좌석을 피한다. (혹은 깊은 대화 회피)					
50	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사회의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51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게 장애 형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52	부모님은 장애 형제에게 실제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53	장애 형제는 내가 기분이 상해 있을 때 나를 이해해 준다.					
54	장애 형제에게 나의 싫거나 좋은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한다.					
55	장애 형제는 완전한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내가 도와주어야 한다.					
56	장애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안하다.					
57	씨클이나 모임에서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나갈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58	부모님이 장애 형제에게 화를 자주 내시는 것이 괴롭다.					
59	장애 형제는 내가 급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 나의 처지를 이해해 준다.					
60	장애 형제의 고집이 너무 세서 조용하기 위해 내가 저주는 편이다.					
61	부모님이 장애 형제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되는 창피와 어려움에 대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오히려 괴롭다.					

	문 항	항상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62	부모님이 장애 형제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것 같아 기쁘다.					
63	장애 형제의 잘잘못을 엄격하게 따져서 냉정하게 감정이 표출되지 않은 형태로 이야기한다.					
64	가정방문을 하는 친목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65	장애 형제의 행동에 대해 주로 잘못을 끄집어 내어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 는 편이다.					
66	생일이나 잔치에 친구를 초대할 기회가 있어도 장애 형제 때문에 초대하 지 않는다.					
67	극장, 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도 장애 형제와 함께 참석한다.					
68	내가 잘못했을 때는 떳떳하게 사과하며 장애 형제의 잘못은 진실하고 다 정하게 이야기 해 준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